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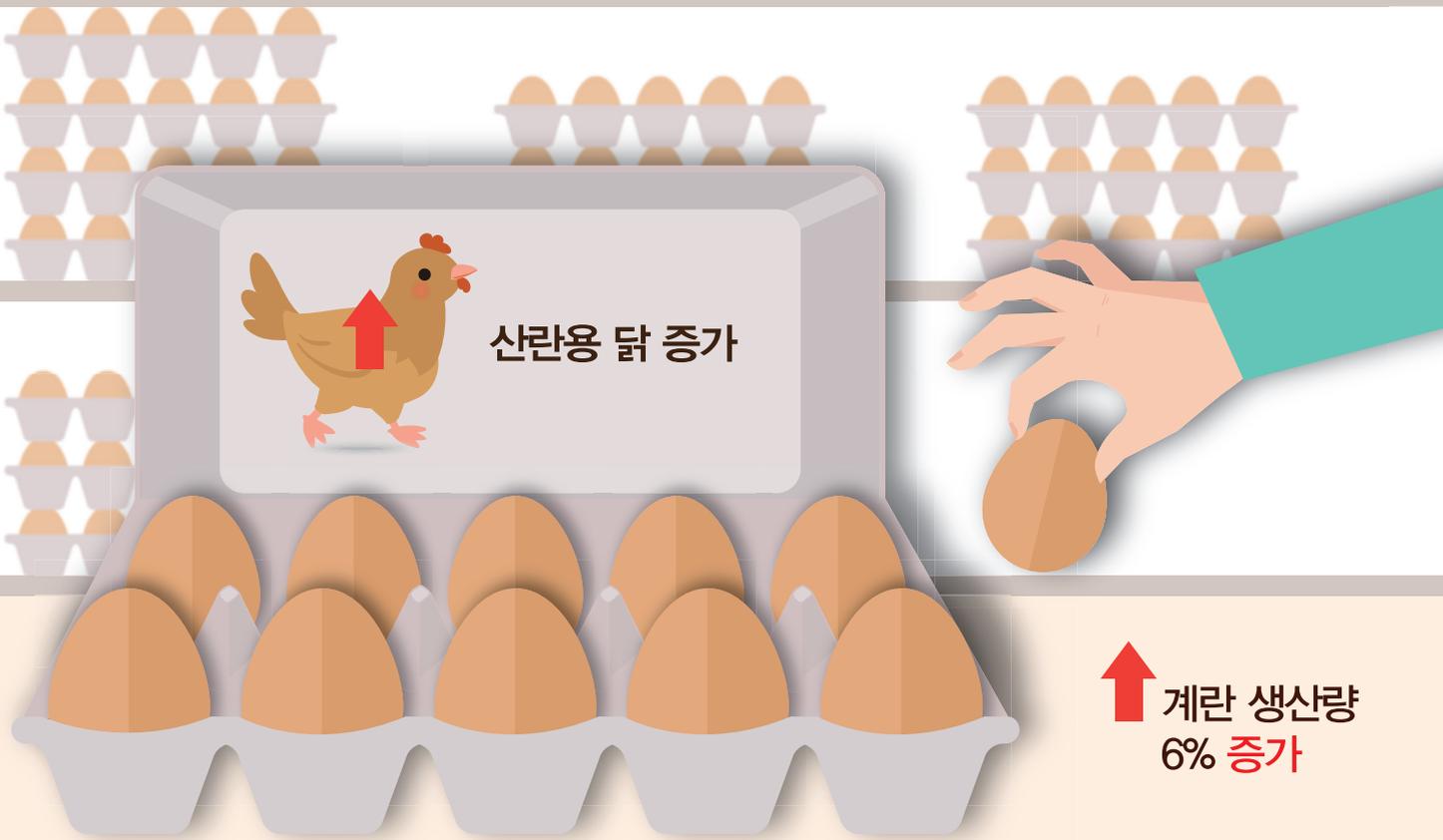


산란계

농업관측센터 aglook.krei.re.kr

축산관측은 한육우, 젓소, 돼지, 산란계, 육계,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. 돼지,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(2,5,8,11월) 25일에 발표됩니다.

6월 계란 산지가격 1,300 ~ 1,400원 전망



전년 대비 계란 수요
소폭 증가



계란 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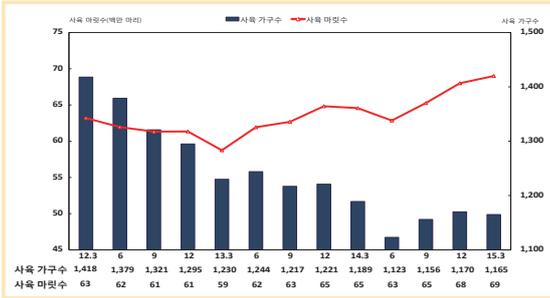
경제주렁에 따른 산란 성계 도태 및 SI 방역 철저

※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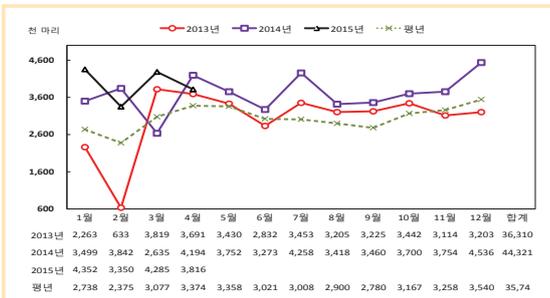
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7% 전망

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사육 가구수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「가축동향」

산란계 병아리 입식 동향



자료: 대한양계협회

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

구분	6월	7월	8월
2015년	95.3	100.3	103
2014년	100.0	75.3	68.5
증감률(%)	-4.7	33.2	50.4

주: 2014년 6월을 100으로 함.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전망치

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 전망

단위: 만 마리

구분	6월	7월	8월
2015년	5,165	5,153	5,133
2014년	4,734	4,740	4,849
증감률(%)	9.1	8.7	5.9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추정치(2014년 6월은 통계청 가축동향)

산란계 마릿수 전망

단위: 만 마리

구분	6월	7월	8월
2015년	6,908	7,005	7,033
2014년	6,457	6,335	6,341
증감률(%)	7.0	10.6	10.9

자료: 농업관측센터 추정치(2014년 6월은 통계청 가축동향)

산란계 사육 동향과 전망

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

- 3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6.7% 증가한 6,888만 마리였으며,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6.0% 증가한 5,187만 마리였다.
-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전년 동월 대비 4.1% 감소하였다.

1분기 산란 종계 및 실용계 입식 마릿수 증가

-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21만 마리로 평년 대비 213.9% (전년 대비 466.0%) 증가하였으며, 산란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대비 20.2% 증가하였다.

6~8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 전년 대비 상승

-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, 6~8월 산란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전년 대비 평균 26.3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계란 가격이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, 6~8월 병아리 입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(중앙자문회의 결과).

6~8월 계란 생산 가담 신계군 증가 전망

- '14. 12~'15. 2월 산란계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59.3% 증가하여, 6~8월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6~8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 증가 전망

- 4월 산란 성계(노계) 도태가 감소하고 산란 가담 신계군이 증가하여 6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전년보다 9.1% 증가한 5,165만 마리로 전망된다.
-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 증가로 인해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7.0% 증가한 6,908만 마리로 전망된다.

계란 생산량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 전망



계란 수급 동향 및 전망

6~8월 산란 성계(노계) 비중 감소 전망

- 4월 산란용 배합사료는 전년 동월 대비 11.8% 증가하였다.
- 4월 산란 전과 초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5.9%, 15.5% 증가하였으나, 산란 중기와 말기 배합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7.4% 감소하였다.
- 4월 산란 성계(노계) 도태는 전년보다 7.6% 감소하였으나, 산란 말기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성계 비중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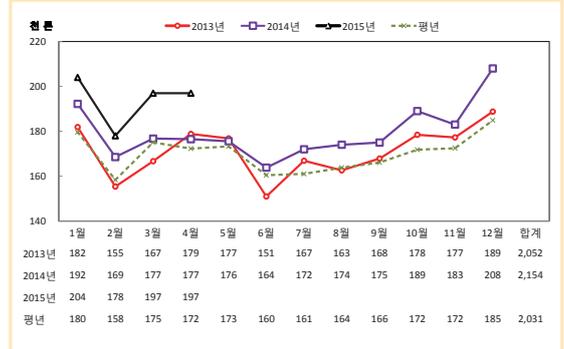
6~8월 전년 동기 대비 계란 생산량 증가 전망

- 표본농가 조사 결과 6~8월 성계(노계) 도태의향은 전년 동기 대비 18.7% 감소하였으며, 입추의향은 전년 동기 대비 2.1% 감소하였다.
- 표본농가 5월 평균 산란율은 전년 동월 대비 3.0% 증가하였다.
- 성계(노계) 도태 감소 및 계란 생산가담 신계군 증가, 생산성 회복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은 6.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HPAI 발생여부에 따라 매몰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로 계란 생산 및 유통에 영향이 줄 수 있으며, 일부 지역의 소모성 질병과 생산성 저하가 지속된다면 계란 생산량 증가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가정 내 계란 수요 전년 대비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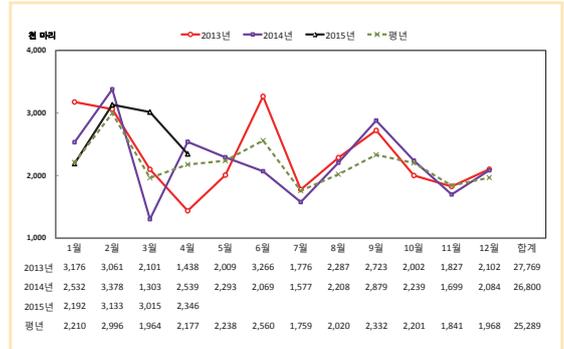
- 계절적으로 6~8월은 계란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(방학)이나, 전국적인 소비 침체가 지속되었던 전년에 비해 계란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 동향



자료:농림축산식품부

산란 성계(노계) 도태 동향



자료:농림축산검역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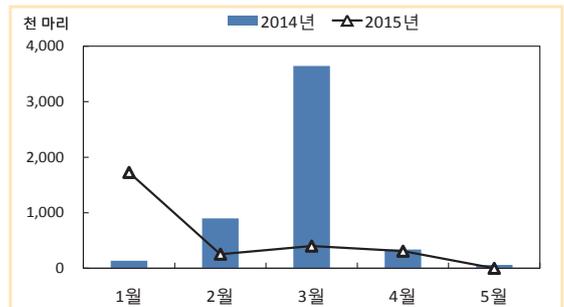
표본농가 입추의향, 도태의향 증감률

단위: %

구분	3~5월	6~8월
입추의향	1.0	-2.1
도태의향	-16.6	-18.7

자료: 농업관측센터

'14, '15. 1~5월 산란계 시 발생 동향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

계란 가격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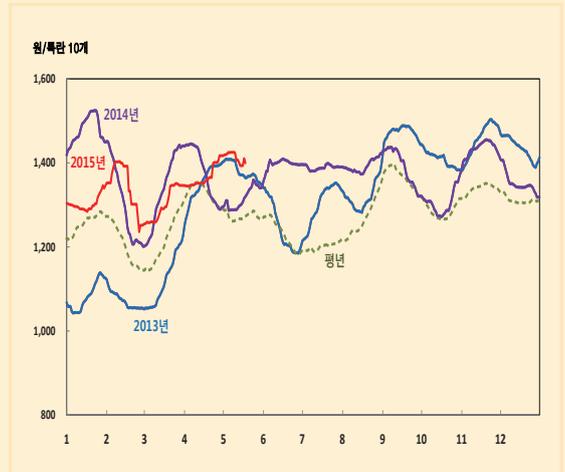
5월 계란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

- 5월(22일 까지) 계란 산지가격은 행락철 수요 증가, 대형마트 할인행사 증가로 전년 대비 7.2% 상승(전월 대비 4.3% 상승)한 1,415원(특란 10개)이었다.

6~8월 계란 산지가격 전년 대비 하락 전망

- 6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.4% 하락한 1,300~1,400원(특란 10개)으로 전망된다.
- 7~8월 계란 산지가격은 계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평균 2.9% 하락한 1,250~1,450원으로 전망된다.
- HPAI 지속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, 병아리 입식 증가로 계란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.

계란 산지가격 동향



자료: 농협중앙회(5일 이동평균가격)

과도한 병아리 입식을 지양하고, 경제 주렁에 따른 성계 도태를 통해 난가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. 더불어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.

축산관측(산란계) 다음호 예고 (예정일자: 2015. 8. 25)

- 축 중: 산란계
- 내 용: 사육 동향과 전망, 가격 동향과 전망, 배합사료 생산동향

이 『축산관측보』는 농업관련기관·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 『축산관측보』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【질의응답】을 선택한 후 【글쓰기】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 연구원 홈페이지 【KREI 회원】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보를 전자우편(e-mail)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홈페이지 ☞ <http://www.krei.re.kr> ☎ 02) 3299-4108 FAX: 02) 965-6893

<http://www.mafra.go.kr> ☎ 044) 201-2217 FAX: 044) 868-3965

담당자: 우병준(축산관측실장), 이윤경(산란계, 오리), 이형우(한육우), 김형진(육계), 한봉희(돼지), 정세미(젓소), 황수진(문서교정)

이 「축산관측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·분석한 후, 농업과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